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편 75:1-1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정한 시간을 선택하시어 심판하십니다. 다만 때가 이르기 전에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려는 자비 때문이며 때를 결코 넘기시지 않는 것은 의인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연구하며 우리는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의인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 시인이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삽은 악인을 질투했고 그의 발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과 심판을 믿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갈등도 질문도 시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의 심판이 가끔 연기되나 시간표대로 가까워져 왔으며 악인은 그들이 행한 대로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인은 패할 것이고,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편은 성경의 다른 두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바치는 노래(삼상 2:1-10)이며,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 송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말 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1절).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 즉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들에 관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얼마 동안은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나 결국은 심판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를 돕기 위해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시고 다스리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1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보증과 경고를 말씀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보증을 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에서는 시편 73편에서처럼 배신의 혼란, 의심, 근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시간을 선택하시어 심판하십니다. 다만 때가 이르기 전에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려는 자비 때문이며, 때를 결코 넘기시지 않는 것은 의인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때의 심판의 행사는 불평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심판을 포기했다거나 수행하지 못한다는 망언을 남발한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심판이야말로 성도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4절의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 불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저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심판을 포기한 무능자요 소임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자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한 자입니다. 이에 대해 시인은 저들에게 오만한 행동을 버릴 것과 신성모독의 망언을 토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의 ‘뿔’은 힘과 위엄을 말합니다만 여기서는 교만의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감히 뿔을 휘두르며 도전하는 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망동입니다. 하늘을 향해 뿔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3. 설교자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선포 한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는 절대 보증을 주시며 악인에게는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설교자 또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시킵니다. 하나는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인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확정된다는 것이며(7절)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결국 땅바닥에 내던져지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을 찌꺼기까지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행위자에게 공정한 보응임에 틀림없으나 동시에 가공할만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사 51:7, 렘 25:15-38, 49:12, 51:7, 계 18:6에도 나타납니다.

4. 예배자 개인이 찬양 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9절).

‘나는’이라는 1인칭 대명사는 9절에서 2번, 10절에서 1번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부르며 그 분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 분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도록(10절). 심판의 현장에서 악인의 뿔이 베임을 받고 의인의 뿔이 높임을 받는 것이 공정한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본 편의 저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며 예수님은 그 심판장이십니다. 바위가 낮아지고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습니다. 해뿔은 고통에 빠졌고 히틀러는 자기 병커에서 자살했습니다. 설교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되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신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의 잔을 면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사명자 특별 새벽기도회

- 황형택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19일(월)부터 -

우리교회는 50일간 계속되고 있는 2008 사명자대회 마지막 주간인 이번 주 11월19일(월)부터 24일(토)까지 매일 새벽5시에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황 목사께서 선포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7장을 본문으로 (월)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화)믿음으로 사는 인생 (수)더 아름다운 인생 (목)시각을 바꾸십시오 (금)선택받는 인생 (토)아름다운 인생을 주제로 한다.

2008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우리교회 당회는 2008년도에 처음 서리집사로 임명받을 피택자 교육을 지난 16일(금), 17일(토) 각각 가졌다. 아직 미필자는 **오늘(18일) 오후 7시 마지막 기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교육을 필한 분은 **11월21일(수) 오후 8시30분, 22일(목) 오후 7시, 24일(토) 오후 5시**에 각각 당회의 면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임하시길 바란다.

피택장로 고시 및 면접

공동의회에서 2/3이상 득표를 얻어 피택된 이갑진, 하인선 피택 장로는 6개월간 교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노회고시를 합격하였다.

이들은 오는 20일(화) 최종적으로 교회고시와 당회 면접을 받고 과제물을 제출하면 11월25일(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일, 추수감사주일에) 장로로 임직케 된다.

작은 사랑 실천 - 모세선교회

우리교회 모세선교회(회장 오정수 장로)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 하였다. 모세선교회는 우리교회 인근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모여살고 있는 '구름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난 **11월15일(목)사랑의 연탄 30,000 장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추석 때 우리교회가 바자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명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과 이번에도 모세선교회에서 사랑의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우리교회가 계속하여 빈약한 자 구제의 손길을 더욱 널리 펼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 매일 새벽 주력교구와 찬양대원의 특별헌신을 기대한다.

황형택 목사는 숭실대 철학과, 서강대 대학원 종교학과, 서울장신대 신대원,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 석사 그리고 보스턴 대학교 신학박사 과정(설교학 전공)을 이수하였다.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였고 현재 2005년 9월부터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2007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

지난 9월3일(월) 개강하여 10주간 계속된 2007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지난 주일로 모든 학사일정을 마쳤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42명이 수료한다. 2007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 성경대학 빌립보서반 (23명)

김경숙 김민애 김순덕 김옥순 김유경 김혜영 문금희 박인자 박정자 배은희 안미경 오은이 윤용미 이상호 이은옥 이재순 이종미 임관숙 조정희 진선자 최무순 최준숙 현승희

▷ 성경대학 열왕기상반 (20명)

강석조 강영자 김미성 김숙자 김영주 김정은 김혜경 박시향 성기호 유숙인 이규희 이상호 이영숙 이정구 이천애 이해순 이해경 정병무 정유정 김진희

▷ 성경대학 출애굽기반 (12명)

박화실 이소명 최아영 김하니 이재희 한대석 허 숙 전화진 이영자 이태인 오경자 이상호2

▷ 성경대학 골로새서반 (20명)

정병무 이해경 김점숙 최미경 최규초 김장섭 최준숙 김진희 최지혜 김숙자 김상태 이태주 이상호 최용걸 이미연 김미성 조상희 김영주 이해순 김진희

▷ 교사양성반 (28명)

장호영 송민정 김동진 김진한 양옥자 김유정 윤 윤 김형상 류동석 홍정란 이은희 박정자 윤영숙 오은이 정유정 권오철 김명화 김경희 김경숙 이영미 위현주 김종철 김애자 최용걸 유 신 이영애 곽수환 성봉선

▷ 교구일꾼양성반 (12명)

김옥연 김순영 박성신 박형수 선혜영 이재봉 임광우 정선경 조미환 최금숙 현승희 박영실

▷ 주부대학 (26명)

이경숙 이재경 추정화 김경숙 정정숙 조정아 홍순복 김경희 신선영 선혜영 최복희 김영미 박순복 박명희 추순자 임효정 김수원 소선자 이해순 장정화 조정옥 김하니 최미옥 김연옥 김선에 이신자

▷ 선교대학 (38명)

강석조 경은숙 김명심 김미향 김숙자 김순덕 김영호 김혜중 문옥일 민찬기 박상운 박순복 박영희 박진아 서향정 송인권 송행희 오은이 오충래 이상식 유기찬 윤용미 윤현미 이규정 이상호 이영기 이영숙 이종숙 임상현 장호림 전운순 진경자 최금숙 최종희 홍승자 윤숙지 곽미숙 양정실

▷ 살림경로대학 (63명)

고석규 고후덕 공진문 국산옥 권순례 김계순 김기순 김덕자 김명숙 김복려 김봉실 김부순 김선미 김신애 김연정 김은혜 김인순 김중순 김종자 나옥녀 노은선 노은선 박두영 박분화 박상금 박형숙 박희은 방춘자 백영숙 서귀용 신점순 신정녀 신종현 심삼덕 엄정순 오이순 왕순덕 유봉려 유철엽 유환희 윤만현 이기춘 이기훈 이막동 이민화 이부자 이순창 이옥란 이응남 임봉자 임순덕 정빈모 조명려 주백요 진임순 최무순 최순애 최영순 최정옥 최장화 최향봉 탄금희 한치중

사명자의 기도 - 장애우들을 위하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임옥균 집사(에바다부 부임)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 길로 달려갔던 무지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흠에 침을 섞어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씻게 하여 밝히 보게 하셨으며,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니 귀가 들리고 혀가 풀리게 하셨으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장애인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맹인은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보지 못해 안타까울지는 모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맹인은 더러운 세상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농인은 찢어지는 꿩음과 같은 유행가를 듣지 못해 안타까울지는 모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농인은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상 영혼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세상 유희에 달려가지 못해 안타까울지 모르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장애우는 죄악 길로 달려가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정진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장애우들이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많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 중에서도 불후의 명곡을 남긴 베토벤을,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절었지만 4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루즈벨트나, 맹인이며 농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생각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정상인을 부끄럽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애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같은 처지에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둔 죄악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장애우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천국시민 양성 - 2007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을 마치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이태주 성도 (골로새서반 수료자)

금요새벽시간 골로새서 성경공부를 할수있도록 직장의 여건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수길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일목요연한 교재로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받은 바울의 가르침처럼 만물의 주, 믿음의 주, 생활의 주, 선교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렵니다.

정유정 집사 (열왕기상반 수료자)

한 주중 그 시간대에만 성경공부가 가능하다는 핑계로, 또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역사를 잘 알고 싶다는 욕심으로 열왕기 반을 신청했다.

강의 첫 시간, 성경에 관한 간단한 상식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까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점수 결과는 정말 부끄러웠다.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예레미야 등등 사람과 그들의 행적은 잘 알겠는데 막상 이스라엘 전 역사의 흐름에 사람과 사건을 연관 지으려 하다 보니 나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중구난방으로 엮어 기억해 왔음을 깨달았

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한다. 정말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외에는 성경을 역사의 흐름에 맞춰 안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 자칫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오히려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학기동안 재미있고 독특한 장식남목사님의 강의로 열왕기상 수업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되어 소중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춘숙 집사 (빌립보서반 수료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긴 하는데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감동이 적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고 없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반복학습,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함을 알고 이번 가을학기 성경대학에서 빌립보서 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일깨워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 목표에 이르기까지 결코 자만하지 말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 등을 배웠고,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야겠다는 소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사랑과 열정으로 강의해주신 서명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대석 성도 (출애굽기반 수료자)

올 한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통독을 마친 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성경대학 출애굽기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그리고 성경 속에 숨은 진리를 알고자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성경대학 강의 1시간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참으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하시고 그의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저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하나 섬세하신 하나님을 또한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조금은 지켜워했던 성막에 대한 설명 부분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대조해 보면서, 참 많은 회개와 기도를 하게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해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성경대학을 수료하면서 다음 학기 개강이 벌써부터 기대 됩니다. 출애굽기반 강의하신 한상은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계자 집사 (고등부교사)

주님께선
공생의 삶을
아픈 이들과 늘 함께 살으셨지요!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자들의 친구이셨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온몸으로 하얗게 밤을 밝히며 신음하는 이,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스울을 오가며 스러져 가는 가너린 영혼
주님만 의지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금홍과 사랑의 눈으로 민망해 하셨던
그 금홍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되게 하옵소서.
왕 따 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
소외된 이웃과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옵소서.
깊은 상흔의 미세한 울림에도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손,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절망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골고다의 붉은 십자가는
상처 입은 자들의 등불입니다!

